

수영대회 앞둔 광주 환경정비 급하다

도로변 곳곳 잡초 무성하고 호텔 주변 등 쓰레기·담배꽂초 널려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라는 마음으로 청결도시 만들기 동참해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치밀한 도심 환경정비와 함께 시민 모두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서포터즈라는 자세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광주정보 취재 결과, 수영대회 경기장이 있는 조선대와 광주여대·남부대 등의 주변은 차선 도색을 비롯한 도로 관리와 환경정비가 막바지에 달한 상태였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도 수영대회가 임박하자 미리 선정한 집중관리구역에 총집결하는 등 대회 성공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대회 기간 머무를 호텔 주변이나 경기장에 따른 선수단 이동 경로, 경기 후 방문 예상 지역 등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35개의 객실을 확보해 대회 관계자들이 분부호텔로 이용하게 될 서구 상무지구 호텔가 주변은 최근 담배꽂초 전용 휴지통이 설치되는 등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지만, 불과 7~8m 떨어진 식당·유증가 뒷골목은 여전히 방치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특히 쓰레기 봉투가 아닌 마대부대에 제멋대로 담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기하면 수십 개의 맥주병이 깨진 채 방치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회기간 동안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아침 운동이 일상화된 외국 선수와 관계자들의 조경이나 산책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천변을 비롯한 산책로 등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구 치평동 극락천수공원 양방향 도로 주변과 북구 임동 전남방직 버스정류장 일대, 동구 수기동 천변 등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

더불어 경기장 이동시 가장 눈에 띄는 구간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 서구 유촌동-계수사거리로 이어지는 수백여 m의 인도에는 무릎높이까지 자란 잡초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걷고 있었다.

버들마을에 거주하는 양수훈(38)씨는 “인도를 다 덮을 정도로 무성히 자란 잡초 때문에, 불편해서 자전거도로로 걸어다니고 있다. 수영대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서둘러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요일과 주말·휴일에 주요 간선도로나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내걸리는 각종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파트 분양사나 광고회사, 자영업자 등도 대회 기간만큼은 현수막 게재를 삼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쓰레기가 널려 있는 조선대학교 인근 주택가 뒷골목(위쪽)과 무성한 풀로 보행이 힘들어진 서구 유촌동 인도.

어머니 유산 다툼...매제에게 흥기 휘둘러

광주동부경찰, 30대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3일 재산 문제로 다투다 매제에게 흥기를 휘두른 A(3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자신의 빌라에서 매제 B(41)씨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집 밖으로 피신해 크게 다

치지는 않았으며 A씨의 막내 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막내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달 전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고유정, 범행 장면 사진으로 남겼다

휴대폰서 봉투 사진 등 3장 발견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의 휴대폰에서는 범행 이후 사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등 범행 이후의 행동과 관련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3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유정(36)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의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전남편 강씨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다. 경찰이 이러한 추정을 하게 된 데는 고유정의 휴대폰에서 남긴 사진 3장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핫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 있다. 이의 범행을 한 뒤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 안도동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밤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며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렸다.

경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다”며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충장로 상가 식당 화재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

3일 오후 2시 45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의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68㎡ 면적의 식당 전체가 타고 같은 건물에 입주한 2층 사무실과 3층 교회에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식당 주인과 손님 7명 등 건물 안에 머물던 사람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일 오후 2시 45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의 N통닭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7명의 손님이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마을 수로서 90대 숨진 채 발견

지난 2일 오후 3시 55분께 해남군 삼산면의 한 마을 수로서에서 주민 최모(여·91)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자 그를 찾아나선 조카

A(65)씨와 요양보호사에 의해 집 앞 2m 아래 수로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평소 해당 수로서에 쓰레기를 버려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고려, 이날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발을 헛디뎠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룹 ‘신화’ 이민우, 옆 데이블 여성 강제추행 혐의 입건



○...서울 강남경찰이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데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가 양 불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민우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